



Parable of the Wicked Servant(1620), Domenico Fetti,
Gemäldegalerie Alte Meister, Dresden, Germany.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푼었어야
하지 않느냐?”**

(마태 18.33)

■ 미사전례

- 제 1독서: 집회 27,30-28.7
-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제 2독서: 로마 14,7-9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복 음 : 마태 18,21-35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케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5

믿음, 희망, 사랑, 기도, 은총, 청빈, 정결, 순명, 휴식, 침묵, 성실함...

근본적 영성은 영성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근본적 영성은 기본이자 근본이면서 동시에 가장 포괄적인 영성이다. 모든 가톨릭 영성을 쓸어 담는다. 근본적 영성 안에서 모든 가톨릭 영성이 나오며, 동시에 그 영성들을 분별하는 기준이다. 말하자면 처음이자 끝이다.

근본적 영성만이 원천 샘물이다. 스승이고, 기준이다. 근본적 영성을 제시하신 하느님만이 우리의 대장이다.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군대 훈련병이 사격장에서 명령,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인행동하면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절대 명령을 들어야 한다. 근본적 영성 품안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안락한 평화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본적 영성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일선 본당을 예로 들어보자. 부정하고 싶지만 몇몇 본당에는 신자들 간 반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오로 사도도 코린토 교회의 분열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마치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1코린 1,12-13)

주변의 본당에도 ‘파’가 많다. 먹는 파가 아니라 ‘레지오파’ ‘꾸르실료파’ ‘성령기도회파’ ‘ME파’ ‘나눔의 묵상회파’등이다. 근본적 영성을 모르면 각 파들이 세력 다툼을 할 수 있다. 근본적 영성을 제대로 알면, 모든 특수 영성은 저절로 그 안에 녹아들게 된다. 그리고 영적인 혼란도 사라진다. 특수 영성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또 근본적 영성을 모르면 특수 영성의 좁은 틀에만 빠져 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재속회 회원들은 자칫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재속회 회헌에 함몰될 수 있다. 각 수도회, 신심 단체, 신심 운동 등 특수 영성은 모두 근본적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믿음 희망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순명과 청빈, 정결을 각 삶의 자리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특수 영성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레지오 마리아에 몰입하던 신자가 어느 날 단원들의 행동에 실망하면, 바로 냉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소공동체 모임을 열성적으로 주도하던 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신앙을 잃는 경우도 봤다. 이렇게 우리는 성당 각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 누구 때문? 사람 때문이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사람이 실수하고 상처 준다. 근본적 영성이 있다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 영성 그 자체에만 매달린 사람은 이런 위기를 겪으면 쉽게 흔들린다.

레지오든 성령 기도회든 그 각각의 공동체 안에는 근본적 영성이 있다. 특수 영성 속에서 근본적 영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자의 경우는 예외지만 평신도는 어떤 특별한 신심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 70% 이상은 근본적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영성생활의 30%는 특수 영성에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근본적 영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근본적 영성에 뿌리를 두게 되면 본당 내 단체 간 반목은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 영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 영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변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역량을 주실지 모른다. 이 점에서 개인 영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인 영성은 근본적 영성에 바탕해, 특수 영성에서 영양을 섭취할 때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모든 영성을 통합하는 근본적 영성에는 오류가 없다. 특수 영성과 개인 영성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근본적 영성에 비추어 나 자신을 쇄신해야 한다. 일선 본당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자들에게 근본적 영성의 가치를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신앙에 삼덕과 기도생활, 은총의 생활, 이 5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빈 정결 순명의 덕은 나중에 별도로 정진하더라도, 앞서서 5가지만이라도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웬만한 영적 위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본적 영성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특수 영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가톨릭신문 제2754호 (2011년 7월 10일) -정영식 신부 (효명고등학교 교장)>

주임신부 : 양태현(그레고리오) ☎323-828-7482 / 보좌신부 : 정재덕(안토니오) ☎323-493-2727 / 종신부제 : 예영해(프란치스코) ☎213-249-2127

성삼 소식

새 영세자 소식

- 세례식: 9월 20일(주일) 오전 11:20
- “영적 선물 봉헌서”는 9월 13일(일)까지.
- ※세례 준비자 명단 (8명)

이름	세례명	구역반	이름	세례명	구역반
최현수	다윗	1/3	이혜인	릴리안	3/3
김주미	율리아나	1/3	장지영	체칠리아	4/2
성지영	스텔라	1/1	장인숙	엘라	3/3
윤숙현	리디아	4/4	한경진	제노	4/3

본당 신심 단체 재무감사

- LA대교구 지침에 따라 본당 내 신심단체 회계 보고를 받습니다.
- 회계연도: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제출마감: 2020년 9월 30일
(회계 보고서 양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문의: 본당 재무 감사 허관수(라이문도)
☎213-300-3313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0월 1일(목) 오후 7:30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한가위)을 맞이하여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봉헌 예물 접수: 9월 30일(수)까지, 사무실.

YouTube 생방송 미사

- 일시: 매주일 오전 10:00 영어미사
- 검색이름: 성삼 한인 천주교회(Sungsam KCC)

주일학교 개학 및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학일시: 9월 13일(주일), 반별 시작 시간은 추후공지
- 등록비: 없음.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주일학교 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 봉사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문의: 정 안토니오신부님 ☎323-493-2727

성삼 한국 학교 2020년 1학기 학생 모집

- 가을 학기: 8월 29일(토) ~ 2021년 1월 30일(토)
- 수업방법: 온라인수업(Zoom)
- 수업시간: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2:30
- 대상: 유치부~12학년, SAT반.
- 수업료: 한자녀 \$175. 두자녀 \$300. 세자녀 \$425.
- 문의: 김 네온 수녀님 ☎323-828-8876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우리들의 정성 (2020. 9. 6 현재)

교 무 금	7,695.00	교무금(23명) 고수엽, 김경찬, 김대식, 김복선, 김영길, 김유석, 김은민, 박옥경, 박효신, 백경호, 백부기, 서진활, 유진혁, 이강현, 이 궁, 이기광, 이상규, 이윤희, 조재형, 채효종, 최명희, 한상윤, 홍익표, 감사헌금(5명) 김광신, 서진활, 송재욱, 이윤희, 익명 기부금(2명) 김경찬, 익명, 성소후원금(12명) \$26.00
주일헌금	897.00	
감사헌금	1,400.00	
기부금	550.00	
2차 헌금	594.00	

본당살림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것은 십자가의 제사, 곧 희생이다. 서양언어로 '희생'과 '제사'는 같은 말(Sacrifice)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십자가상의 제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희생이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리고 현양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기념해 온 '십자가 현양 축일'은 이날 축일의 특징이 말해주듯이, 오랫동안 십자가 경배예식을 가졌다. 또 기도문과 독서는, 십자가를 낙원의 생명나무에, 또는 모세가 높이 쳐들었던 구리뱀의 표상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곧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멸시에 대한 영광의 승리,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희생으로 드러내신 당신의 사랑을 기억해 보자.

그러기 위해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날 십자가 경배예식 같은 것은 없지만, 가정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를 내려 청소를 하고 매만져보자. 날마다 집안은 청소하면서 주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는 일년이 지나도록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일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을 '십자가를 청소하고 닦는 날'로 보낸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되새기는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다. [대구대교구 나기정 신부님께서 경향잡지(1999년 9월)]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1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 베이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어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웁)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무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